

WMU 동문 사역 이야기

주님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쁨으로

장진호 선교사

저는 2005년부터 2008년 간에 월드미션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큰 은혜와 도움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나눕니다.

<구원 간증>

저는 유교적인 색채를 띤 불교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교회라고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문외한이었고, 친척이나 친구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는 전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저는 세상 일에 열심이었고, 자기 의가 강한 자였으며, 목표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적십자와 학생회 활동을 한 영향으로 대학에 와서도 여러 단체활동과 정치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활동과 나름대로 목표지향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공허가 있었고, 참 만족을 얻지 못한 채,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철학을 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감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사랑의 주님께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같은 학과의 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친구를 따라 네비게이트 선교회 모임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무신론자였던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저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시작하였고, 성서적인 올바른 생애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때로부터 저는 매일 복음 전파에 자신을 드리게 시작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트리지 않고 매일 2-3명의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캠퍼스에서, 버스 안에서,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약 1년 후, 저의 전도 노트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8월 군 입대할 때까지 동일한 열정으로 전도와 양육에 자신을 드렸고, 주님께서 많은 열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외 선교사로의 부르심과 준비>

1978년 1월 어느 날, 저는 그 당시 네비게이트 선교회 부산지역 책임자이며, 저의 영적 아버지인 변희관 목사님 댁에서 함께 거하며, Home training(일정 기간 동안 책임자 집에 함께 거하며, 신앙과 생활 전반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을 받고 있던 중, 그분의 서재에 꽂혀있던 리빙스톤의 생애에 대한 전기집을 읽으면서 크게 감명을 받고, 저 자신을 해외

선교사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저의 삶은 이 목표에 집중된 가운데, 많은 선교에 대한 책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집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세계비전에 관한 성경구절들을 발견하거나, 선교에 관한 메시지나 선교보고대회를 통해, 저의 가슴은 더욱 불타올랐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있었던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새벽마다 올라가 기도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시온의 팽창과 메시아 사역과 연관된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부르짖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1980 년, 군 입대를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을 하였습니다.

« 주님, 저는 예비 선교사로서 이 군 생활을 통해 필요한 선교사 자질을 계발하고 주님 앞에서 확증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합당한 주님의 일군으로 훈련해 주십시오, » 라고 기도 하면서, 욥기 23 :10 과 시편 66 :10-12 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1982 년, 군을 제대한 후, 부산대학 가까운 곳에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계속 캠퍼스 사역을 경험하며 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1989 년 초부터,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국내 훈련을 받고, 같은 해 7 월,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여, 약 8 개월 간, 현지 선교사 훈련과정을 마친 후, 그 당시 네비게이트 선교본부에서 선정한 선교지인 스리랑카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며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 비자를 얻기가 힘들었던 이 나라에 사업투자를 한 이랜드 봉제공장에 직원으로 비자를 얻기 위해, 1991 년 1 월, 이랜드에 입사하여 6 개월간 사원 교육을 받은 후, 7 월에 스리랑카에 직업 선교사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새로운 인도를 따라, 이랜드를 그만두고, 한국에 돌아와 사진 현상기술을 배워, 1994 년 7 월, 코트디부아르로 사역지를 옮겨 현재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지 소개>

저희가 선교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1960 년 프랑스로 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인구가 약 2600 만 정도이며, 75 개 종족에 60 개 언어, 주요 생산물은 커피, 카카오입니다. 경제 수도는 아비장이며, 종교는 이슬람교 40%, 카톨릭 25%, 개신교 10%, 정령숭배가 25%입니다.

*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새벽마다 아비장 국립대학을 찾아가 기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거닐며 “아비장 대학이 코트디부아르는 물론 서부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가 직장과 사회, 나아가 전 민족 복음화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저희에게 우연히 학생들과의 접촉점이 마련되었습니다.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었던 터라, 언어공부와 현지 적응에 집중하던 저희에게 매일 새벽 기도하던 곳 옆 핸드볼 구장에서 태권도 훈련에 여념이 없던 현지 청년 꾸아메 달리에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 훈련에 열심이던 그를 보면서, 만약 이 청년이 주님을 알게 되어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저의 복음 전도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 당시 그가 다니던 의과대학 재학생 친구들을 하나씩 둘씩 데려오기 시작하면서, 선교지 도착 6개월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2개의 성경 공부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교사역에 대해>

저희는 현재 코트디부아르에서 대학생과 젊은 엘리트 그룹을 대상으로 제자양육과 지도자 양성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대륙에 비해 많이 뒤쳐진 가운데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올바른 지도자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분야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를 길러내어, 이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워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 저희가 그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던 가장 큰 어려움을 나눈다면, 이들의 심각한 실업 문제로 인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큰 장애물 중 한 가지는 바로 부정과 부패, 쿠데타,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이로 인한 고질적인 가난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이 생존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Micro Project 를 통한 자립의 기회를 만들고 고용의 창출 등이 실제적인 필요이며, 이것을 통하여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나, 사역의 열매가 꽤 늘어나자, 저희가 봉착한 첫 번째 사역상의 문제점이, 멤버들의 심각한 실업사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기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동안 학생들에게 주던 장학금과, 기타 혜택들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매일의 끼니를 걱정하며, 내일의 전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낙심하는 형제자매들을 매일 대하면서, 저희는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본부와 상의한 끝에,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을 시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996 년도에 이랜드 재고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식당 운영,

학용품, 의료용구 판매, 사이버 카페운영 및 컴퓨터 용품 판매, 제빵제과 사업, 농산물 유통업 등등 저희의 오랜 자립 선교를 위한 노력과 헌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선을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원리를 따라,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제 3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선교사의 공통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현지인들의 자립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네비우스의 3자 원칙, 즉 자립, 자치, 자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자립이며, 이 현지 교회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에, 비로소 자치, 자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 교회의 자립을 사역의 목표로 삼고, 이의 실현을 위해 지난 20 여년을 투자하고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 저희가 오늘도 코트디부아르에 살며 선교해야 할 동기를 주는 2 가지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지난 1999 년 12 월 이후, 수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고, 급기야는 2002 년 9 월 18 일 내전이 터졌습니다. 이 쿠데타와 내전은 수년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권 탈취를 위한 야망과, 몇몇 주변국들의 국익과 사욕이, 그리고 신 식민지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이권이 개입된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국영 방송국 옆에 있기 때문에 쿠데타나 전쟁 등, 무슨 중요한 일이 터지면, 저희 집은 군인들의 전쟁터의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총알이 수없이 날아 다녀, 저희 아이들 예랑, 예찬과 함께 방 안에서 엎드려, 시편 46 편과 시편 91 편 등을 읽으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셔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던 학교가 불타게 되어, 학교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1 년간 프랑스 통신 강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 만의 희생자가 생겼고 수백만의 피난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이 아프리카 땅에 악한 사탄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군들이 그들의 미신적 영력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며, 목을 칼로 베서 피를 마시고 심장을 꺼내어 구워먹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 당시, 이 나라 정부에서, 전쟁의 충격으로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징모해서, 약탈과 인권 유린이 가장 악랄했던 서부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저희 멤버 중 상담학 석사 과정을 마친 한 형제가 다녀와,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에꾸에> 라는 수도 아비장에서 서쪽으로 500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엄마와 14 살된 여자 아이와 16 살된 남자 아이, 이렇게 세 식구가 자신이 사는 곳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을 했습니다. 가는 중, 이들은 마약에 취한, 한 무리의 무장 반란군들에게 잡혔는데, 반란군은 이 16 살 아들에게 엄마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소년은 딱 잘라 거절했고, 그러자 자기 엄마와 누이가 보는 앞에서 이 소년의 목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용기에 담아, 여동생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동생은 애걸하며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마심을 당했습니다. 엄마는 강간을 당한 후 죽임을 당하고, 이 소녀는 반란군이 있는 진영에 끌려가, 14 명의 반군들에게 동물처럼 강간 유린을 당했습니다. 얼마 뒤 정부군이 이곳을 공격해, 이 소녀는 살아났는데, 임신한 가운데 <귀글로> 라는 보호소에 인도 되었습니다.

-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밤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을 나무에 묶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고, 아기 뱀 산모의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어 때기장을 치고, 집에 사람들을 가두어놓고 불을 질러, 튀어 나오면 총으로 쏘 죽이고,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다시 불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람들을 냇으로 토막 내 죽이고, 사람들을 묶어 우물에 집어넣어 총질해 죽였습니다.

- 또 다른 형태로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실례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 전명숙 선교사가 캠퍼스에서 인도하는 체조 클럽을 통하여, 이 나라의 고위관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좋은 크리스천이며, 나중에 내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 사무실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장장 4 시간에 걸쳐서 비디오를 보여주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사탄의 힘으로 파괴하려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한, 어느 무당의 증언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무당이 오랫동안 자기가 돌봐주었던 자기의 가까운 조카이었으며, 이 지역 감리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무당 행위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그가 겉으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교회나 성당의 지도자들 중에 큰 무당이 많은 것은 흔히 있는 현상의 하나입니다. 이 관리의 증언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사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종으로 삼아, 모든 악랄한 짓을 하게 하는 지를 폭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악령들의 역사에 관한 증언을 여러분들께 소개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곳에서 사탄이, 더럽고 추악하고 극악한 모든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사탄에 의해 비참하게 고통 받다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지금도 선교지에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흑암과 같이 어려운 상황 중이지만, 예수님이 값 주고 사신, 귀한 보배 같은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사야 58: 12 처럼 '오래 황폐된 곳들,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들을 찾고, 키워 주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사야 61: 1-9 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며, 저희들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는 일이 계속 있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 저희의 선교전략은 영적 재생산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회심자를 얻고, 그 회심자를 다시 양육하여 전도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재생산은 질적인 성장을 보장해 줍니다.

이 선교비전은 디모데후서 2: 2 에서 바울-디모데-충성된 사람-또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영적 4 대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세대 형성이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열매인 달리에 형제를 통해 저희 집으로 인도된 학생들 중에 아뇨멜이 있는데, 이 형제도 주님을 영접한 뒤 말씀을 배우면서 캠퍼스 전도를 통해 이수프 형제 등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수프 형제는 레오나를, 레오나는 두에 형제를, 두에는 로랑을, 로랑은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복음은 대를 이어 전파되어 가고 있고, 그 중에 이수프 형제와 그의 영적 아들 레오나는 현재 각각 기네와 토고에 선교사로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에 형제는 현재 코트디부아르에서 목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세대를 잇는 사역에는 전인적인 양육과 돌봄이 요구되며, 이 전인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열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며, 이들을 친 자식처럼 돌아보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 약사로 약국을 경영하면서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였고, 제 아내는 고등학교 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만난 필요들은, 저희로 하여금 여러 모양으로 변신케 하였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실업 문제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자립을 돕기 위해 이것저것 많은 사업들을 펼치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특별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1일, 그날 저녁 7시 15분, 세 명의 무장 강도가 저희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제 생애 참으로 죽음과 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 일로 저는 아파트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떨어지면서, 오른쪽 대퇴와 턱이 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1년 6개월간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되었고, 지금도 한쪽 다리가 3센티정도가 짧아져, 항상 구두 축을 높여 신고 다닙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집에 도난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 중에 혐의자로 지목한 사람인데, 저희가 신뢰하고 가까이 지내온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로 풀려나자, 그 사람이 저를 부당하게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고소함으로 1년 반을 법정 투쟁으로 힘을 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많은 위로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영적인 자녀들로 인한 기쁨과 격려입니다. 저희를 친 부모처럼 따르며,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빠듯한 월급에서 자기 수입의 반을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형제도 있고, 어느 의사 형제는 저희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저희를 도와, 이곳 한인이든, 사역 속의 형제자매든, 자기를 필요로 할 때마다, 기쁨과 자원함으로 수고해 주는 형제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저희를 도와 사역에 유용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안정되고 좋은 직장까지 포기하고 헌신하는 오른 팔 같은 형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저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2005년에, 저희가 훈련시킨 현지인 일군 2명을 각각 주변국가인 세네갈과 베냉으로 선교사 파송을 한 일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3호 선교사를 토고로 파송하였습니다. (이수프 형제는 세네갈에서 10년간 사역을 마치고 현재는 기니에서 선교하고 있음)

현지인 선교사의 장점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동일시와, 적응기간 단축, 선교비 절감, 비자문제 해결, 선교지의 높은 수용성 등 타 대륙 출신 선교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대륙의 55개국 중, 불어권이 24개국, 영어권이 18개국, 기타 어권이

13 개국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불어권인데, 이곳에서 훈련된 일군이 아무런 제약 없이 불어권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어와 문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교지 도착과 더불어 바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송한 현지인 선교사들도 아주 모범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문서번역 및 출판사역>

또 한 가지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에 꼭 필요한 중요한 투자는 문서출판 사역입니다. 한 나라의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려면,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성숙해져야 하는데, 현재의 코트디부아르 교회에는 이러한 지도자를 위한 말씀교육이 아직도 소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전체 불어권 아프리카 교회에 건전한 기독교 도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성경공부 교재, 양육교재, 경건한 신앙서적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특히 성경공부교재와 양육교재는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너무나 흔히 듣는 '제자양육'이라는 말이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양육에 대한 개념을 가진 목회자도 찾기 힘든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94 년 선교지 도착 시부터 저희가 한국에서 사용하던 성경공부와 양육교재를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아직 출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서출판 선교에 관심이나 부르심이 있는 분들과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오늘날 복음에 소외된 땅입니다. 그 동안의 선교가 주로 영어권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말로 쉽게 선교할 수 있는 영어권에 집중을 하였고, 불어의 종주국인 프랑스는 세속적인 캐톨릭 국가이기에 선교에 거의 기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불어권 아프리카는 아직도 복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어권 문서출판 사업에 동참하신다면, 그것은 아프리카 24 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0 개의 불어권 국가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 사역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